

## 기적 시리즈 # 5 : 보이스(그때와 지금)

기본 본문: 이사야 35:4-6, 마가복음 7:31-3, 누가복음 9:48, 18:17, 마태복음 18:6

연사: 알렉스 레슬러

날짜: 2023년 7월 23일

시리즈: "그때와 지금"

전환: "목소리"의 기적. 예수님의 공생애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올 날을 기록하니...

4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여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오시리니... -이사야서 35:4a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자신이 올 징조에 대해 씩니다...

5 그대에 소경의 눈이 뜨일 것이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렸습니다.

6 그대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고

병어리 혀가 즐거이 외치느니라 -이사야 35:5-6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이 고대 예언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 MVMT 1: 치유(마가복음 7:3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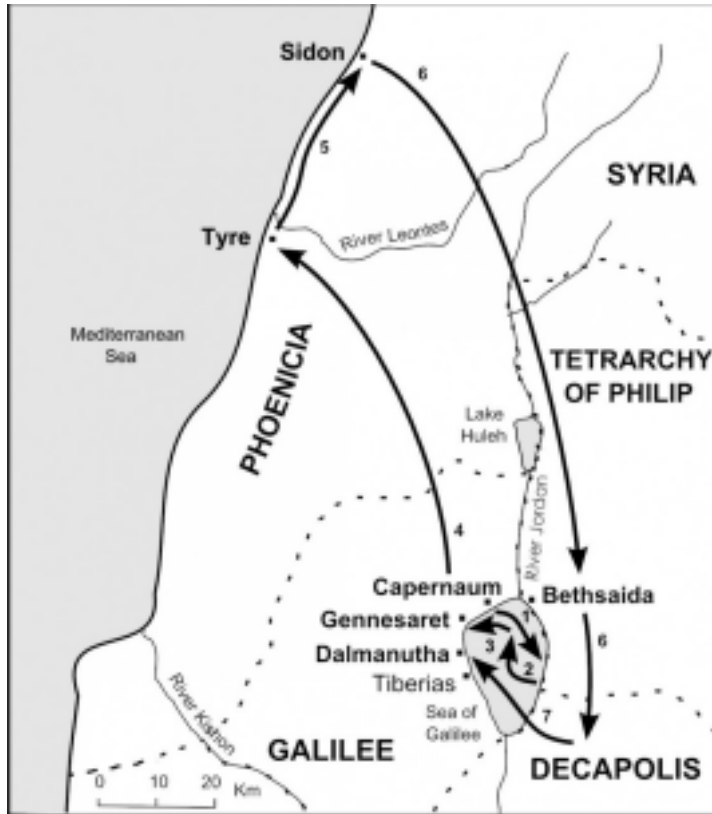
예수께서 귀머거리와 병어리를 고치시다

31 예수께서 두로 지경을 떠나 시돈을 지나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데가볼리 지방에 이르시니

문자적 지리학은 혼란스럽지만 상징적 지리학은 충분히 분명하다. 갈릴리 바다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 남동쪽으로 가기 위해 두로에서 시돈까지 정북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의 청중이 알 수 있는 모든 이방인 도시나 영토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일을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2 어떤 사람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 "어떤 사람들은"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에서 더 많은 추종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직접 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도, 명예도, 위로도 구하지 않고, 어떤 숨은 동기도 없이 그를 돕기 위해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모범이 됩니다.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 청각 장애인 + 병어리 남자

이 남자가 이런 식으로 태어났는지, 나중에 점진적으로 그에게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는 장애인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관습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돌로 던지거나 노출시켜 처형하는 것이었다. 장애가 있는 일부는 노예로 사들여 엘리트들의 오락을 위한 궁중 광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든 살아남았거나(자비로운 간병인이나 다른 상황에 의해)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다면, 당신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양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대다수는 가족이나 주변 지역 사회의 보살핌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 남자의 장애는 삶을 특히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생각을 주지 않았거나 심지어 그를 골칫거리로 여겼던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떼어놓으십니다).

**33** 예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떼어 놓고 그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셨다. 그리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34**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시며 “*에파타!*” (“열려라!”를 의미). **35**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다소 흥미로운 기적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위한 공식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요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입니다 - 그분의 행동과 말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침** - 이방인 지역. 일부 이방인들은 침에 치유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종교적, 인종적 분열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유대교 랍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치유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한숨으로 하늘을 바라보다** - 예수님의 행동은 그분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사람을 고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통에 대한 감정적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많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복음서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몹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연민을 말해줍니다. 사실, “가없는 마음이 들었다” 는 구절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께서 하신 일에 자주 인용됩니다.

**“열려라!” (Ephphatha !)** - 치료사들, 특히 이방인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나 주문 등을 중얼거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공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동정심을 나타내시지만 이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평범한 말을 사용하시고(여기서 그의 말쑥은 마술적이지 않음)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36**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37** 사람들은 몹시 놀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잘 해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귀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십니다.” - 마가복음 7:31-37 KLB

이런 이야기를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관심을 받는 것보다 왕국을 가져오는 자가 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그를 자신의 틀에 집어넣고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위해 그를 이용하려는 강력한 세력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지만 주의를 산만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진짜 필요가 있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참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관심을 끄는 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인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가능한 한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시대에 예수님은 거리, 거실, 회의실, 일상 생활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파란색 체크 표시, 확인된 계정에 관심이 있거나 사회적 범위를 늘리려는 시도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러한 지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들에게 갔고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성을 축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레이더 아래로 날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의 사역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이상한 일련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심 없이 왕국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했지만 모든 관심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몰았습니다. 이것을 모순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진리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겸손과 지혜를 모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겸손과 지혜의 길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잘못된 이유로 모든 옳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결국 처음부터 좋은 일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전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가 이전에 말한 고대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진술로 끝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바로 그 분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전체 구약 이야기를 성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화신입니다.

완벽한 표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구속과 회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봅니다.

**응답: 이와 같은 이야기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매주처럼 우리는 하나의 큰 질문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기적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액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에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전히 치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또한 응답하도록 초대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주변 세상에 선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더 깊은 작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소리 없는 자에게 소리를 주십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이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비를 구걸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삶을 만드십시오. 그에게 훨씬 더 어려웠을 일을 하십시오. 그는 언어를 듣고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육체적인 목소리를 되돌려 주셨지만 풀린 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목소리를 얻는 것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 - 장애인.

나는 이미 고대 세계가 어떻게 장애인의 삶을 무시하고 심지어 파괴했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연민과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으로 이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십니다. 말하고, 경청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학시절 다운증후군 친구가 있었다.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친구로 지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목소리를 회복시키기 전에 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누군가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행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력과 특권과 지위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어떻게 겸손과 지혜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이야기의 긴장감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이 의도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완벽하게 살아 있음을 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주신 다른 사람들입니다...

### "외국인 우리 가운데" -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다른 왕국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온통 사람들을 그들의 도시의 성벽으로 끌어들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평화의 도시" 를 의미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평화의 도시" 에 끌렸기 때문에 인종적,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환영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의 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은 너희 가운데 시민으로 여겨질 것이다. 너는 나그네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34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을 억압하는 불평등과 불의의 제도를 만드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사랑합니다.

즉, 그들에게서 그들의 목소리를 거두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새롭게 된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 도시에는 결코 닫히지 않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 도시로 몰려들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은 항상 상황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그리고 사실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와 같은 아이디어에는 분명히 정책과 정치적 영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태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5000피트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마음이 당신의 삶에서 진실한 것인지 반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대화가 하나님께서 열국을 위해 나타내신 것과 같은 보살핌을 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떻게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이 그들의 구주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정책의 변화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불을 지피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성령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 사회 경제적 다양성 -

이것은 또한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운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약 법이 도처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우리의 권력 위치를 고려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의 자원. 그리고 명시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축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갖는다면 종종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 어린이들 -

48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

누가복음 9:48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7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6

이것들은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권능을 주신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성가신 것으로 보는 주변 어른들에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를 착취하려는 자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은 보이고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침묵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린이들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갖는다면, 자주 말하지만 거의 듣지 않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소리를 갖는 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 동물 + 땅 -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을 돌보십니다.

동물은 이 창조의 일부이며 또한 새 창조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CS Lewis가 나니아의 일부 동물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다른 동물을 말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오는 시대에 찾을 수 있을지 종종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동물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창세기에 따르면 그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동물에 관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여기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8장 -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노예와 가축을 일하게 하면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금전적 이득과 종교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과 동물을 착취했습니다.

요나는 다가오는 도시의 멸망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니네베로 보내집니다. 요나는 그것에 대해 마음이 굳어 마지 못해 그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이 도시의 120,000명과 동물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는 예언자 요나에게 특히 목소리가 없는 사람과 동물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동물은 인간 생태계에 필수적입니다.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삶을 만듭니다.

땅도 중요했다. 하나님은 땅 자체에 안식일을 주는 것에 대해 구약 율법에 구체적인 지침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천 채굴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오염시키기 위해 이 땅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형벌도 있습니다.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죄였습니다.

창조물을 돌보는 것은 좌익의 정치적 의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내린 것이며,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본연의 소명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되고, 그것을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일부입니다.

## 여성 -

“ 역사를 통틀어 여성들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압도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해롭다고 느껴져 말의 낭비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셨고

비하하고 억압하는 권력 구조를 전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여성에게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과 관심으로 그들의 경험을 존중했고 여성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될 자리를 차지하도록 초대했습니다.” - Tiffany Bluhm, *Prey Tell*, pg. 120

**피 흘리는 여인** - 그녀의 상태는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상태는 그녀를 사회적, 종교적 추방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과 치유를 인정하기 위해 군중(그녀를 피하고 그녀를 무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고 물으셨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나였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 - 부정한 여자가 남자를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는...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딸” 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더럽거나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출혈을 멈추고 그녀의 믿음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과 사역에서 그녀의 방해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특히 남자들)이 교제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또한 남자는 남편이 주변에 있어야만 여자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부서지고 배척당하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그러한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녀의 손실을 인정하시고 어떤 남편도 그녀에게 줄 수 없었던 치유를 베푸십니다.

이 시대에 남편은 여성에게 목소리, 장소, 안전, 수단 및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는 양동이를 버리고 그녀를 기피 했던 바로 그 마을로 들어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초대하기 위해 목소리를 사용 합니다. .”

예수 때문에 그 여자는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녀에게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 이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목소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종교 시설은 그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녀를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되찾기 위한 계약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이 취약한 여성보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유혹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야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그 행위에 휘말린 유혹자였다고 가정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성난 폭도들 앞에 던져져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합니다.

판사도, 배심원도 없고 사형집행인에게 직진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녀는 취약하고 그는 그녀가 보호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는 모래 위에 무언가를 씩니다(아무도 모르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이 남자들이 간통을 저지른 여성들의 이름을 쓰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나는 그 생각에 많은 신뢰를 두지 않지만 흥미로운 반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가 쓴 것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사물을 다시 원근법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고소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전에 그녀를 이용했던 남자들이 아니라 동정심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그는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물어봐?” “당신이 그 사람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죄의 삶을 떠나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진정으로 첫 번째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는 무엇을합니까? 그는 그녀의 연민을 보여줍니다. 침묵하던 여인에게 목소리를 내어 자유와 희망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목소리를 제공하고, 자비롭게 말하며, 그녀가 창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 즉 “외국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피조물 자체, 어린이, 장애가 있는 사람, 여성에게 목소리를 되돌려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를 계속 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목소리 이상의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대응 방법에 대한 많은 초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몇 분은 말하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먼저 듣기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냐? 다음 몇 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목소리 없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